

98퍼센트 정도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일어난다는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됐다. 초기 유산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세포 분열과 착상 과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수많은 임신 초기 유산 경험담을 읽으면서, 다음에 병원에 갈 때쯤엔 내 뱃속에 아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를 바랐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없던 것이었으니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여기는 쪽이 더 맞는 방향 같았다. 그래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아직 소식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임산부가 쟁겨야 하는 일상 속 체크리스트를 착실하게 지켜나갔다. 난생 쟁겨 먹은 적 없던 엽산과 비타민D를 아침마다 물과 함께 삼켰고, 임산부가 하면 안 된다는 요ガ 동작을 챙지피티에게 물어보고, 밤마다 바르던

로션의 성분을 검색해 봤다. 그러면서도 나는 속으로 ‘이 배아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기를 지키고 싶은 건지, 없는 척하며 지내고 싶은 건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모호한 내 마음과 다르게, 병원에 다녀온 후  
아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처럼 아파서 나도 모르게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위로 올려줘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시작됐다. 처음 내 속을 울렁이게  
한 건갓 지은 밥이었다. 밥솥에서 나오는 증기  
냄새가 너무나도 역했다. 매일 쓰던 삼푸, 바디워시  
향기는 씻기 싫을 정도로 강하게 느껴졌다. 손에  
남는 비누 향마저 힘들어서 모든 제품을 향이 없는  
것으로 바꿔야 했을 정도였다. 아침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졌고, 전에 없던 편두통과  
골짜기 통증이 생겼다. 아직 1cm도 되지 않은 작은

풀칠면 1



## 임신이라는 사건

고을비

